

항몽유적에서 보내는 6월의 편지



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.

현충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시길 바랍니다.
항몽유적도 원나라와 맞서 끝까지 항쟁을 벌인 고려무인의 드높은 기상과 자주
호국의 결의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한번 방문해
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듯 합니다.

문득 영화 『포화속으로』에서 어느 학도병의 편지가 생각납니다.
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? 어제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. 물내나는 청결한
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수의(壽衣)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.
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.
꼭 살아서 가겠습니다. (중간 생략)

항파두리에서 죽어간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넋도 한번쯤 위로해 보는
뜻 깊은 6월이었으면 합니다.

